

여수는 通 하는중

민선 6기 여수시가 소통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여수' 만들기 위해 한창이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 이후 시민고충과 생활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중인 '여수 신문고' 이용 시민이 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실제 '여수 신문고'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여수시의 양방향 소통행정이 활성화되자 서울 노원구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이처럼 시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맞춤형 SNS 활성화로 시민행복 이끌어=주철현 여수시장이 시민행복을 위해 민선 6기 핵심 가치(旗幟)로 내건 '여수 신문고'는 SNS를 활용, 시민들의 생활속 적소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담팀을 꾸려 시민 참여도를 높여왔던 시는 기존 적소민원 담당관실을 지난 2월 시장 직속 '시민소통담당관실'(시민소통팀, 범법지원팀, SNS팀)로 전격 개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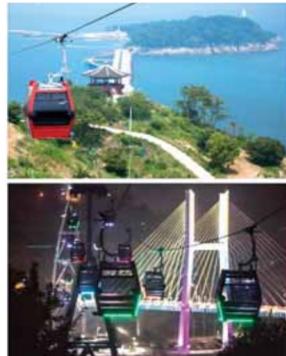
이 같은 소통행정으로 지난해 접수된 3800여 건의 적소 민원 중 3700여건(9.5%)을 해결해 민원처리율도 높였다. 여기에 매달 열리는 시 정례회에서 시민 요구사항과 생활민원 등을 각 부서에 직접 전달, 처리 속도도 높였다.

'여수 신문고'는 현재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페이스북 북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채널, 인스타그램 등 4가지 SNS를 활용해 운영중이다.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직원 대상 SNS 맞춤형 실무 교육도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실시하는 등 소통행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SNS 양방향 소통 활발...시정 알리고 시민소리 듣고



여수시가 민선 6기 출범이후 시민들의 고충과 생활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 신문고' 배경 화면(왼쪽)과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공직자·시민·전문가로 구성된 '365 학습동아리' 자체회의 모습. 오른쪽은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알린 주철현 여수시장의 페이스북.



소통하는 모습을 알린 주철현 여수시장의 페이스북.

민선 6기 '여수신문고' 시민 이용 1만명 넘어서 지난해 민원 96.5% 해결

장인호 시민소통담당관은 "신문고 활성화로 적소민원 해결은 물론 명문고 설립 등 주요 지역현안 전달, 명품 관광코스 및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시정 정보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통·주차난 등 고질 민원 해결위해 학습동아리 운영=또한 여수시는 공직자와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65 시민소통 학습동아리 팀'을 꾸려 반복적인 고질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섰다.

특히 적소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 주력해 왔다.

우선 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소통담당관실 직원들의 체계적인 현장실사와 함께 365동아리 팀의 교통대책 마련 학습 토론과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대체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1000만 관광도

'365 학습동아리 팀' 운영 공직자·시민·전문가 참여 도로·교통문제 해소 주력

시에 걸맞은 쾌적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5년 여수시 상습정체구간 해소방안' 정책 실행에 최근 돌입했다.

시는 상습 정체구간인 부영 3단지 사거리 ~ 삼성SDI 사거리, 서교동 로터리 ~ 한재 사거리, 웅천 천수공원, 시외 버스터미널 옆 일방통행로, 양지마을 ~ 충무고, 성산공원 ~ 롯데마트 등 6개 권역 16곳 중 우선 9곳에 대해 시범 추진을 결정했다.

시범구간 중 불합리한 차선으로 교통난이 심한 곳에는 차로 폭 조정을 통해 주행차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실제 차로 폭을 조정해(2차선→3차선, 3차선→4차선 등) 교통체증을 해결한 인천시와 하와이 등 국내외 우수사례가 적용됐다.

여수시는 기존 차량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선에서 차로 폭 조정과 좌회전 차로 확보, 교통신호 연동과 혼잡구간 우회유도

등을 통해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방침이다.

시는 총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대책 시범구간 9곳 중 올해 상반기 4곳(구 보건소, 양지마을~충무고, 시외버스터미널, 서교 연등전길), 하반기에 2곳(원예농협 앞, 신기 삼거리)을 우선 개선한다. 나머지 3곳(서시장, 도원 사거리, 부영3단지)은 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여수경찰과 시민단체 합동 교통질서 캠페인 ▲버스택시 화물 등 운수종사자 교육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배포 등 30만 시민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확립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전주소사·재지정 ▲7대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시내버스 장착 주차단속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행정으로 교통 기초질서를 확립해 갈 방침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여수 신문고' 등 생활속 시민 불편과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적극 펼쳐 시민이 진정한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명문고 설립·대학병원 유치 전력투구

주철현 시장 정례회서 강조

여수시가 명문고 설립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여수시는 "명문고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에 전력투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주철현 시장은 지난 6일 여수 문예회관에서 열린 3월 여수시 정례회에서 "명문고 설립과 대학병원 유치는 지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거리가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과 공직자들이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여수시는 그동안 24학급 600명 규모의 '사립 외국어고 설립'과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병원 유치'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 시장은 "3만7000여명의 지역 학생들을 위해 매년 94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중학교 졸업생 중 215명이 외지로 진학했고, 재학생인 학생들도 200여명 타지로 빠져나갔다"며 "지역 인구유출을 막고 인재양성을 위해 명문고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시와 뜻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와 함께 "92% 넘는 시민이 원하고 있는 대학병원 유치도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못 이뤄낼 게 없다"며 "대학병원 유치·설립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의료수준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밤바다 편안하게 즐기세요

13일부터 방문자 센터 운영

여수시는 오는 13일부터 중앙동 이순신관광관광안내소에서 '여수 밤바다 방문자 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전국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와 돌산공원 '빛노리아' 등 아름다운 여수의 야경과 밤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야간에도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문자센터는 낮 시간대에는 이순신관광관광안내소로 이용하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해 주·야간 시내관광 운행 정보, 관광코스 안내, 먹거리와 숙박 등 각종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여수시는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해상 케이블카 등 볼거리가

많이 확충돼 서울과 수도권 등 외지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이 운영중인 열차 상품 '내일로'를 이용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80% 급증했다.

특히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따라 오는 여수시 관계자는 "5월부터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이 곳곳에서 열리는 등 여수 구도심 일대가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창조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서 "여수 밤바다가 '버스커버스커'의 감미로운 노랫말처럼 낭만과 여유, 젊음을 아우르는 국제 해양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계약심사제 강화...여수시 올해 31억 예산절감 목표

여수시가 계약심사제 강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

여수시는 "올해 계약심사제 예산절감액을 지난해 28억원보다 10% 가량 늘어난 31억원을 목표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학술·기술 용역사업에 대한 적정심사를 위해 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심사기법 연찬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심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공급사 발주시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원가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월 발행한 '계약심사 사례집'도 전 부서에 비치해 활용중이며, 오는 6월 기술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강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기간도 10일에서 4일로 단축,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특별 비상근무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두인 여수시 안전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예산집행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이동통신

지역번호

지방지사	시내지역
광신 062944-0444	광천 069-8375
군산시 063467-2500	남광부 222-9440
정읍시 063531-5544	동광명 852-0175
	동문 264-2012
	동부흥 222-8054
	문운 225-6001
	백선 267-4748
	봉선 073-4668
	북광주 679-5530
	상무 525-3781
	서광주 372-2362
	송하 369-0583
	신안 678-6605
	양산 512-1732
	임천 571-7658
	오치 386-7001
	용봉 522-7752
	우천 512-8116
	운곡 371-9818
	월평 961-2338
	중양 222-1896
	중흥 224-6604
	진단 673-18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통암 682-8112
	하남 959-1800
	화정 375-9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